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조지아 ‘언론 통제법안’ 반대시위 가열...야당 당수도 폭행 당해



흑해 연안국 조지아에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경찰이 이를 강제로 진압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경찰이 이날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의회 앞에서 이른바 ‘외국 대리인 법’(foreign agent law)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가스, 섬광 수류탄 등을 사용해 이들을 해산시키는 장면이 목격됐다.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자가 여러 명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조지아의 야당 ‘국가운동연합’의 대표인 레반 하베이슈빌리도 경찰에게 구타당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하베이슈빌리 대표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오른쪽 눈이 멍들고 부어있는 자신의 사진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경찰은 의회 뒷문으로 나가는 의원들을 막는 시위대에게 후추 스프레이와 경찰봉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의회 밖으로 몰아낸 뒤에도 약 2천 명의 시민은 트빌리시의 번화가인 루스타벨리 거리에서 카페 테이블과 휴지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뒤 경찰과 대치했다.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주도한 ‘외국 대리인 법’이 조지아 의회 1차 독회(심의)를 통과한 지난달 17일 이후 의회 앞에서는 매일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해외 자금을 20% 이상 지원받는 언론이나 NGO 등을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 등 반대 측에서는 여당이 ‘러시아식 법’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친러시아 노선을 노골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당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외국대행 기관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채택했다.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날 조지아 의회에서는 외국 대리인 법에 대한 2차 독회가 진행됐으나 표결 없이 끝났고, 1일 2차 독회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3차 독회 표결까지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친유럽 성향인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회 내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이 표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
려니와(이사야 32:17-18)**

하나님, 언론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외국 대리인 법을 두고 격한 갈등으로 소란스러운 조지아가 주의 공의 앞에 굴복하여 평안과 안전을 얻게 하옵소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견제하는 이들의 분노와 두려움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름과 애통함으로 바꾸사 기도하며 주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돌이켜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 안전한 거처가 되시며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1일 북한을 비롯한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다시 권고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정부가 종교 및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종교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개신교 신자들이 '반혁명 분자', '반역자'와 같은 정치범 범죄자로 취급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작년 4월 평안남도 통암 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으며 이 때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성경의 출처를 밝히길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17개국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립보서 3:8-9)

하나님, 22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북한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주를 믿는 자들을 정치범으로 취급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는 가장 큰 복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나라들이 눈물로 뿌려진 복음을 통해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기적을 행하여 주소서.

▲ 미국 연합감리교회, 40년간 금지한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 40년간 금지해 온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동성결혼 개최 및 주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연합감리교뉴스(UM News)가 전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진행 중인 UMC는 1일 대의원 692명의 찬성과 51명의 반대로 이 같은 안건 등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UMC의 엘지비티(LGBT) 정체성을 가진 교인에 대한 오랜 제한을 조용히 해제하고 있는 이번 총회의 추세를 이은 것"이라고 했다. UMC 한인총회 총회장이자 LA한인교회의 담임인 이창민 목사는 이번 결정에 "전통적 입장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 대의원들이 동유럽에 본부를 둔 지역기구가 신학적 문제로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로마서 1:17-18)

하나님, 주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의견을 앞세워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허락하며, 이를 반대하는 교회의 탈퇴를 허용할 만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연합감리교단의 부끄러운 실상을 꾸짖어 주십시오. 피조물인 우리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에 단 한 구절도 반박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아들을 내어주신 크신 사랑 앞에 이들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로 깨어지게 하소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힘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로 인해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도 기독교인들, 종교 자유 지키기 위해 투표소 향해



인도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매체 월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지난 19일,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는 9억 7,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가 시작됐다. 투표는 전국에 있는 100만 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6주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6월 4일 발표된다.

이번 투표로 543석의 인도 하원인 록 사바(Lok Sabha)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현직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바라티야 자나타(Bharatiya Janata Party, BJP) 당은 집권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회의와 두 번째로 큰 정당인 인도국민당을 포함한 20여 개의 야당 연합과 경쟁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73세의 모디 총리가 세 번째 5년 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의 의회 제도는 하원에서 최소 272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2,600개 이상의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인도 목회자 마니쉬 무커지(가명)는 힌두교도가 인구의 약 80%, 무슬림이 약 14%, 기독교인이 3% 미만인 인도에서 많은 기독교인 유권자들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다. 무커지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고 소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 따르면, 인도는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에 28위에서 올해 11위로 올라섰다. 모디 총리의 힌두교 우선주의는 그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냈다. 이는 힌두교 극단주의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인도의 기독교인 및 기타 소수 종교인에 대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연합은 모디 정부가 선거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당국은 저명한 야당 정치인이자 델리 주(州) 총리인 아르빈드 케즈리왈(Arvind Kejriwal)을 부패 혐의로 구금했다. 또한,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의 은행 계좌도 동결했다.

인도 가톨릭 주교회의, 인도 전국 교회 협의회, 인도 복음주의 연합이 포함된 전국 연합 기독교 포럼은 기독교 시민들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무커지 목사는 어느 정당이 나라를 통치하든 관계없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의 희망을 전하며,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마서 8:35-37)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선거를 앞두고 염려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그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탄의 공격과 핍박은 거세져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게 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선거 결과를 주께 의탁 드리오니, 인도의 교회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복음과 기도로 전진하여 인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 북한산 무기 운송하는 러시아 선박 중국 항구 이용...“심각한 사안”

미국 정부가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는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를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라며 “러시아의 방위 산업과 관련해 긴밀해지고 있는 중러 관계는 역내에서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일이다. 우리는 관련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로이터통신은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 북러 무기 제공에 가담한 선박 중 한 척인 ‘양가라호’가 지난 2월부터 중국 저장성 동부의 저우산 신야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고 전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시편 5:4-7)

하나님,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는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를 이용했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에 대한 염려와 이로 고통받을 영혼에 대한 근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성자들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엄중한 심판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변 국가들의 제재와 권면을 세 나라가 겸손히 받게 하시고 공산주의 정권 아래 억압받는 이 땅에 숨겨두신 교회를 통해 오직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 영국 성공회 성직자, 동성 커플 축복 결정에 교단 탈퇴

작년 10월 영국성공회의 동성 커플을 축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성경의 가치에 반대되는 문화의 영향력에 저항할 것을 한 성직자가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교단을 탈퇴했다고 에반젤리칼나우가 최근 전했다. 영국성공회 성직자였던 리코 타이스는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사랑과 신앙의 기도문’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우려를 담아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실질적 답변을 얻지 못했고, 그것이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성경 공부 사역단체 ‘기독교 탐사 사역(CEM)’ 공동 설립자인 타이스는 계속해서 복음주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금은 지역교회와 기독교 탐사 사역에서 사역을 이끌고 있다. 그는 교단이 현 방향을 유지하는 한 돌아갈 생각은 없을 것이라며 영국성공회가 성공회를 떠났다는 것이 슬픈 사실이라고 말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한3서 1:3-4,11)

하나님, 가장 선명한 복음을 외쳐야 할 교회가 말씀을 거스르는 어두운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증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너져 가는 교회의 모습에 애통하며 주께 엎드려야 할 때임을 선포하오니, 영국교회와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쉬지 않는 기도로 전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던 영국성공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세상의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부모에게 신생아의 성전환을 허용하는 급진적 법안 통과



최근 독일 연방의회가 부모에게 신생아의 성전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워싱턴스탠드가 24일 전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4월 12일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성 자기결정권 정책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법(SBGG)’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 정체성을 보호되는 특성으로 규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출생 시부터 서류에 기재된 성별 표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성(性)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호르몬 치료나 신체 절단 수술을 선택할 때 위험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어린이는 성인과 상당히 다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위 ‘성 확인 치료’의 조작적 성격에 어린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절차를 어린이에게서 멀리하기 위해 꾸준히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의료 실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통과된 최근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자기결정권법으로 인해 시민들은 이제 ‘데드네이밍(Dead Naming)’ 즉,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이름을 부르면, 1만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데드네이밍은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 활동가들이 허락 없이 누군가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이름이 아닌 출생 시 부여된 이름으로 불릴 때 사용하는 용어다.

자기결정권법은 지금도 최악의 상황에 한 술 더 떠 “부모가 자녀의 출생 시부터 기록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세부터는 자녀와 부모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허용 정도에 있어서는 유럽이 미국보다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유해성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드러나면서 이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자기결정권법과 같은 법안이 이 나라에서 제정되는 것을 막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이사야 64:6,8)

하나님, 가장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별과 특성들을 부여하셨음을 고백하며, 갓 태어난 자녀의 성별마저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원수의 간계를 소멸하소서. 강력한 바람처럼 영혼들을 죄로 몰아가는 세상 주관자들을 책망하시고, 법 재정을 막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사 어린 영혼들이 보호받게 하옵소서. 토기장이이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부모세대가 일어나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독일이 십자가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 미국 친팔레스타인 시위 간부 학생 ‘반유대주의’ 발언 논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단체의 간부로 활동하는 학생이 과거 이스라엘인들을 증언하는 반유대주의 발언을 담은 동영상에 SNS에 빠르게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CNN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28일 전했다. ‘컬럼비아대 아파르트헤이트 퇴출 연합(CUAD)’ 지도자 키마니 제임스는 올해 1월 컬럼비아대 당국이 개최한 징계 청문회 등에서 “시오니스트들(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살 자격이 없다”며 “나는 그 사람들(이스라엘인들에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우 편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시오니스트들을 살해하지 않는 점에 감사하라”고도 했다. 이 동영상은 컬럼비아대 인팍에서 분노를 샀다. 컬럼비아대 1학년생인 노아 페이는 “이것은 컬럼비아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와 일치하지 않고 반유대주의의 노골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린도후서 10:4-5)

하나님, 친팔레스타인 시위 단체 간부의 과거 언행으로 인해 더욱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미국에 서로를 향한 비판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자신의 옳다 하는 주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지 않도록 높아진 마음과 견고한 진과 같은 헛된 이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소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인 선물로 주신 은혜의 복음 앞에 모든 영혼을 세워주셔서 구원받은 첫 자리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들을 인도하옵소서.

▲ 대한민국 국민의 54%...태아는 생명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만 태아를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한국리서치의 인식 조사 결과, 임신 단계 중 어느 시기부터의 태아(배아)를 생명체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에 전체의 54%는 임신 7주 이하도 생명체라고 응답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초음파로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8-11주를 생명체로 본다는 응답은 23%였다. 또한, 임신 중단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은 결과, 전체의 66%가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람은 20%,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사람은 10%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59%가 의료인이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 67%가 지정된 병원에서만 낙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269조)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낙태에 관한 법령이 정리되지 않아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7)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에 대한 윤리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원함과 생각에 따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낙태죄를 위헌이라 재판하는 대한민국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속히 마련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도록 국민들의 양심을 깨워주소서.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교회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눈물로 심기어진 기도로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